

2번 아킬레우스 편

가의 아이히만은 자신에 의해 학살당할 유테인의 마음을 상상하지 못하였고, 그가 주체적으로 유테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.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한 유테인 학살로 이어졌다. 즉 폭력이 발생한 것이다.

다의 아킬레우스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뤼카온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을 설득시키고, 폭력을 사용하여 뤼카온을 죽인다.

라의 워딩턴은 어머니를 살해한 강도를 용서하게 되는데, 이는 그가 주체적으로 그들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하고, 그 상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. 반면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죽음 역시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상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뤼카온을 죽인다.

즉, 똑같이 상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킬레우스는 폭력을 휘두르는 반면, 워딩턴은 강도를 용서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.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,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의 살고 싶은 마음 상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.

공감의 힘은 매우 강력하다. 상대방을 공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살인마저 정당화시킬 수 있다. 뤼카온은 아킬레우스에 의해 공감을 받음으로써 스스로의 죽음을 인정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. 이는 재판에 넘겨진 아이히만의 경우와 매우 대조적인 경우이다. 뤼카온을 죽인 것에 대하여 아킬레우스를 비판하는 이를 제시문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.

즉, 자신이 주체가 되어 상대방을 이용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감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. 이 때 상상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데에 매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. 따라서 우리는 공감이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. 주체적으로 원수의 편에서 상상하여 원수를 용서한 워딩턴의 경우도 있지만,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감을 통해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. (923자)